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의 관계

-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 남 희**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기혼자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자본의 크기 및 구성 장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20~40대 성인 기혼 남·녀 714명이다. 온라인 전문 리서치회사에 자료 조사를 의뢰해 인구통계학적 비례에 따른 할당 표집을 기본으로 임의 선택의 과정을 거쳐,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따랐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은 기혼 성인의 결혼불만족과 SNS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완전 혹은 부분 여부를 경쟁모형 비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χ^2 을 비롯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둘째,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 중독 간 매개모형에서 사회자본 크기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자신의 사회자본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집단이 작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 크기를 더 크게 인식했다. 이와 함께, 사회자본 형태별로 비중 차이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도 확인했다. 즉, 사회자본의 형태를 면대면 그리고 SNS 장면으로 구분해 각각의 비중 차이에 따라 면대면 우세, SNS우세 집단으로 구분해 매개모형의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경로 간 효과크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자본이 면대면 보다는 SNS 온라인 상에 더 편중되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 대 면과 SNS 사회자본 사이의 불균형이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 중독 간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혼 성인들의 SNS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결혼불만족, 외로움, SNS중독, 사회자본, 조절된 매개효과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사업팀 박사후과정.

1. 서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SNS 채팅 친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르거나(국민일보, 2015), 특정 폐쇄형 SNS가 불륜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는가 하면, SNS를 통한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사회문제가 되는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창호 외, 2014). 때로는 SNS가 각종 유언 비어나 악의적 루머의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사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기도 한다(세계일보, 2016)는 지적이다. 특히, 과다사용과 집착으로 인한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SNS중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SNS의 과도한 사용은 과잉의존이라는 부정적 문제를 일으키며, 중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오윤경, 2012; 이상호, 2013; 조성현·서경현, 2013; Pelling and White, 2009; Wilson et al., 2010; Kuss and Griffiths, 2011). 일부에서는 SNS 등장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능가하는 강력한 중독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상호·고아라, 2013). 아직까지 한국에서 SNS중독에 대해 공식 통계가 집계된 적은 없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 관련 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014년 우리나라 만 5세~5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7.0%로, 이들 중 51.7%가 SNS 사용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그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콘텐츠시장의 주 소비층이었던 10~20대를, 상대적으로 고가인 스마트 기기 구매력을 앞세운 중·장년층이 앞질러 가고 있는 추세이다(최승미, 2015).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인 SNS라는 점에서 이들이 SNS중독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회적·학문적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성인들의 경우 청소년과 달리 과다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만(서보경, 2014), 아직까지 SNS중독을 진단하고 대응할 사회적 체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들 중에서도 기혼자의 경우 SNS에 대한 중독적 몰입이 배우자 이외 이성과의 관계 및 외도로 이어져 결혼관계를 위협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최승미, 2015). SNS를 통한 이성과의 교류는 비록 성적인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서적 교류만을 나누는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주어 정신건강을 위협하며(Hertlein and Piercy, 2006), 가족해체로 이어져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 확대가족,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파급될 수 있어(한혜영·현명호, 2006) 체계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기혼 성인의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을 밝히려는 탐색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이영훈·유수현, 2012; 유현숙, 2013). 먼저, 기혼 성인의 경우 결혼생활만족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의사소통형태와 부부공감, 가족응집력 등 가족관계 요인이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이정은·양수, 2005; 정병완·홍혜영, 2015; Young and Rogers, 1998). 특히,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기혼자들의 SNS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유계숙·김은희, 2015). 이와 함께 SNS가 소통과 관계, 상호작용을 가장 큰 특성으로 하는 매체인 만큼 외로움, 소외감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박웅기, 2014; 윤명숙·박완경, 2014; Griffiths, 1997)도 SNS중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물질 및 행위 중독의 대표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외로움 및 소외감은 SNS중독에서도 주요 개인 심리 요인 중 하나로 일찌감치 주목 받았다(오윤경, 2012; Clayton et al., 2013). 외로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SNS를 습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독에 이를 수 있다(유계숙·김은희, 2015). 한편, SNS가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 관계망 확대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매체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한국 특유의 관계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대인관계 방식 등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연관성도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송혜진·오세연, 2013; 이지은·성동규, 2013; 고은영 외, 2014; Kuss and Griffiths, 2011). 특히, 개인과 개인 간 네트워크인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일컫는 사회자본(Lin, 2001)의 경우 SNS중독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박성우, 2014; Chang, 2012).

한편, 최근 들어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단선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SNS 중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고은영 외, 2014; 정병완·홍혜영, 2015; Kim et al., 2009)이나, 위험 및 보호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조민자, 2010; 전호선·장승욱, 2014)이 그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SNS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특정 변인의 매개 혹은 조절효과를 각각 파편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대해 Grant 외(2003)는 스트레스원과 정신병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일반모형(general conceptual model)’을 제시하고,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따로 따로 하나씩 규명하기 보다는 이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서¹⁾, 매개변인을 거치는 인과적 경로의 속성이 조절변인에 의해 부여되는 특정한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좀 더 입체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우종필, 2015). Grant 외(2003)는 일반적으로 매개요인은 스트레스원이나 최근에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조절요인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절요인은 성별, 개인의 성격, 사회적 네트워크 등 스트레스 사건 이전에 이미 형성된 변인들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ant 외(2003)의 제안에 따라 결혼불만족이 기혼 성인의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결과로

1) 이를 조건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Preacher, Rucker & Hayes, 2007; Hayes, 2013)라고 부르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해 나타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다시 조절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형태를 나타낸 모형이다.

파생된 외로움이라는 개인적 정서상태를 매개해 SNS중독이라는 정신건강 문제가 초래되는 매개모형을 가정했다. 또한, 이러한 중독 모형 자체가 개개인의 사회자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축적 정도가 높으며(장덕희 외, 2015), 외로움과 고독감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오영은·이정화, 2015; Pinquart, 2003)인 한편, SNS중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Kuss and Griffiths, 2011) 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을 외로움이 중재하는 매개모형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추론하기에 충분하다. 즉,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SNS 중독 문제가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양태에 따라 보호효과를 갖거나 반대로 문제가 심화되는 등 거시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SNS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 기존 면대면 사회자본과 구분되는, '온라인 사회자본'이라는 새로운 영역 또한 출현했다는 점에 주목해 개인의 사회자본을 크기와 형태별로 구분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전적 개념인 면대면 사회자본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이 각각 어떤 양태로 존재하는지, 또한 어떠한 경로로 SNS 중독과 영향관계를 형성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개인적, 가족적 요인과 함께 사회·환경적 요인과 SNS중독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SNS 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검증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기혼 성인의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변인들을 찾아내고, 이들과 SNS중독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 매개모형이 제시된다면 기혼 성인의 SNS중독의 예방 또는 중재에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SNS 중독의 개념

SNS가 인터넷 가상공간인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SNS중독 개념은 인터넷중독의 정의를 차용한다.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 Disorder)'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Goldberg(1996)는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다른 중독과 같이 내성, 금단증상 및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인터넷중독은 아직까지도 DSM-5(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공식 수록되지 않았으며, 정의와 진단 준거조차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의 하위개념 정도로 인식되는 SNS중독을 정의하기란 시기상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중독은 물질 관련 중독에서처럼 몰입, 감정변화, 내성, 금단증상, 갈등, 재발 등 고전적인 중독 증상들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고 임상가들은 주장한다(Griffiths, 2005). 과다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

중력 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중독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송혜진, 2011; 이희복 외, 2014).

특히, 인터넷중독이 게임 등을 통한 가상공간에 매료되어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SNS중독은 타인과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인한 일종의 대인관계중독에서 초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해 독립된 개념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Kuss and Griffiths, 2011). SNS의 병리적이고 강박적 사용에 따른 중독적 폐해를 일컫는 개념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SNS중독(이상호, 2013), SNS중독경향성(오윤경, 2012; 조성현·서경현, 2013; 정소영·김중남, 2014; Pelling and White, 2009; Wilson et al., 2010), 페이스북 중독(서거, 2013; Karaiskos et al., 2010), SNS과다사용(최한나 외, 2013)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NS중독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선행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중독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명확하고 표준화된 합의는 없다. SNS의 중독성 경향의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문헌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의 개념과 관련한 논란을 감안하되, SNS의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사용에 따른 중독적 폐해가 분명히 존재함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을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정의에 근거하여 “과다사용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기존 성인의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과의 영향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결혼불만족과 SNS중독과의 관계

사람들은 기대를 걸었던 결혼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종종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며, 그 도구로 인터넷이 이용되기도 한다(이정은·양수, 2005). 그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행위가 때로는 몰입과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인터넷 중독(이정은·양수, 2005), 스마트폰 중독(최승미, 2015), SNS 과다사용(Sharaievska, 2013) 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고, 정신적·육체적 외도, 결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질 확률 역시 통계적으로 높다는 보고도 있다 (Valenzuela et al., 2014).

이상에서와 같이, 기혼자에게 있어서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관계 중독으로 일컬어지는 ‘SNS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매우 유력하다. 하지만, 결혼불만족이 SNS 중독의 직접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은 병리적 중독이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인자라는 측면에서(Homish et al., 2009), SNS 중독이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 및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집중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한혜영·현명호, 2006; 유계숙·김은희, 2015; Kerkhof et al., 2011).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불만족이나 배우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 질 자체가 SNS를 통한 가상공

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하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김광웅 외(2004)는 기혼자들이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하는 원인 중 하나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정병완과 홍혜영(2015)도 결혼만족도와 내현적 자기애, 부부공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Valenzuela 외(2014)는 '자기선택가설'과 '부정적 효과 가설'이라는 각기 상이한 관점을 통해 이들 두 변인 간 순환적 방향 설정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기선택가설'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성에 SNS를 보다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친사회적' 수단으로 선택한 SNS 공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 SNS 중독이라는 부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부정적 효과 가설'은 SNS 사용 자체가 결혼을 약화시키고, 이혼의 원인이 되는 '반사회적' 매체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소셜 미디어의 과다 사용은 의존 또는 강박적 사용으로 이어져(Raacke and Bonds-Raacke, 2008), 그 자체로 배우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며(Elphinston and Noller, 2011), 결혼생활의 신뢰감을 위협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Helsper and Whitty, 2010)고 경고한다. 중요한 것은 SNS를 바라보는 이 두 상반된 관점 모두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SNS 과다 사용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변인 간 인과관계가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수립을 위해 '자기선택가설'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즉, 기혼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따분함, 우울, 공감 부족, 불행감 등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그 자체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의 중독적 사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의 순환적 인과 관계라는 전제 하에, 중독이라는 정신병리의 결과로서의 결혼생활 측면이 아닌, 정신병리 이전에 개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기혼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모색에 보다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3) 외로움의 매개효과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대수준과 성취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유쾌한 경험'이라고 볼 때(Peplau and Perlman, 1982; Caplan, 2007), 낮은 결혼만족도는 외로움의 원인이 된다(유계숙·김은희, 2015; Stevens and Westerhof, 2006). 이러한 현상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38~55세 중년여성 1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결혼만족도는 외로움과 우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avanmard et al., 2014). Stevens와 Westerhof(2006)는 배우자로부터 낮은 결합 및 지지감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서로 대화가 무익하다고 느껴 감정의 벽을 쌓는 경우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부부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박태영·조성희, 2005). 이는 단순히 배우자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이선미, 2005).

또한, 외로움은 SNS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일찌감치

주목받아 온 외로움은 알콜, 약물 등 물질중독 뿐 아니라 인터넷·게임 및 SNS중독(이현덕·홍혜영, 2011; 박정희·박희현, 2014; Griffiths, 1997; Lemmens et al., 2009)과 같은 행위중독에서도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SNS중독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우울하고 외로움을 더 경험하며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윤경, 2012).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지행동모델을 제안한 Davis(2001)는 외롭고 우울한 개인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면대면 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협하고, 쉽다고 느끼는 온라인 상호작용을 '사회적 의사소통의 치료제(Prozac)'로 인식해 온라인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혼 성인의 경우에도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게 되는데(유계숙·김은희, 2015), 특히, 빈둥지증후군 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중년기 여성의 경우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2006).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외로움은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문제적 결과물인 동시에, 다른 중독에서와 마찬가지로 SNS중독에 선행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 정신건강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초창기 국내·외 연구들이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사회환경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선적 관계를 탐색하는데 그쳤으나, 최근 들어 이들 요소 간 선후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구조적 영향관계를 밝혀보려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성인 기혼자들의 결혼불만족과 SNS중독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중재역할을 구조적으로 검증한 실증 연구는 없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외로움과 SNS 중독 간 직접 영향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 간 관계를 연관지어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중독이나 인터넷중독 분야의 연구 축적물을 토대로 변인 간 영향관계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배우자와 갈등을 빚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로 인해 불만, 때분함, 우울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외로움이 증가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양수, 2005). 이들은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배우자의 공감이나 지지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속 지지체계를 통해 위로 받고 해결하려 한다. 한승수와 오경수(2006)도 현실 세계에서 배우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결혼만족감이 낮은 사람은 이동전화를 외로움을 달래는 대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 내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불안이 클수록 외로움과 충동적 성향이 높고, 이를 매개해 SNS와 게임 등 스마트폰중독에 이르게 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바 있다(여지영 외,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취약성 및 중독 대상과의 상호작용 변인들과의 단선적인 영향 관계 뿐 아니라 이들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독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다양한 구조적 과정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성인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도를 가정환경 위험요인으로, 이로 인해 기혼 성인 개인에게 유발되는 외로움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SNS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족 및 중독문제에 개입하는데 실질적인 이론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기혼자들의 결혼 불만족이 외로움을 초래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SNS에 몰입했을 때 중독에 이를 수 있는 구조적 과정을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하였다. 최근, 중독을 비롯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Orford(2001)와 Shaffer 외(2004)는 물질 중독은 물론 행위중독에서도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이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조장할 수도, 또는 억제할 수도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환경 요인으로 최근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크다(Wilkinson, 2012). 사회자본이란 직접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 관계 내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일컫는 개념이다(Lin, 2001). 친구의 숫자, 신뢰하는 사람의 수, 공동체 생활의 참여 여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독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취약한 인간관계와 불운한 결혼생활이 건강을 해친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송경재, 2010; Putnam, 2001; Zhou, 2005; Wilkinson, 2012). 배우자로부터의 지 지나 유대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더 형성하려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박성우, 2014). 또한, 사회자본은 개인의 외로움, 고독감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오영은·이정화, 2015; Pinquart, 2003), 양적 및 질적으로 빈약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awkley et al., 200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사회자본이 SNS 중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SNS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자본과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즉, 사람들 간의 관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회자본의 형성 및 발현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명혜, 2016). 특히, SNS 이용은 기존 면대면 사회자본과는 별개로 인터넷 또는 온라인 사회자본(e-social capital)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안명규·류정호, 2007).

최근 일부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고독 등 실제적인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Kraut et al., 2002). 결혼생활에서의 관계 만족도가 감소할 때 SNS를 통한 온라인 대인관계에 몰입하게 되고,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Norton and Baptist, 2014). 즉, 면대면 사회자본과 달리 가상공간인 SNS 속 사회자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결혼불만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면 대 면인 경우에서와 SNS를 매개로 한 가상공간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불만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면대면 및 SNS 사회자본으로 각각 구분해 검증해 볼 필요도 있다.

SNS는 Maslow가 규정한 대로 고립되기를 두려워하여 어딘가에 소속되고,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효율적이며, 즉시적으로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선정·김태용, 2012; Özdad and ygarer, 2014). 사람들은 단연 타인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몰입한다(Oldmeadow et al., 2013). Kuss와 Griffiths(2011)는 오프라인에서의 대인 관계를 계속 유지 및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SNS가 주로 쓰여지며, 이에 따른 과다 이용이 SNS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유대감이 강할수록, 즉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지인과 정서적 유대 및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더 사용함으로써 SNS중독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거, 2013; 홍서호, 2015). 한편, 온라인 상에 구축된 사회자본 자체가 SNS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음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송혜진·오세연, 2013; 박성우, 2014; 홍서호, 2015; Chang, 2012). 현실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상호작용 욕구로 인터넷에 의존할 때, 즉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한 지향이 높은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정민, 2006; 이상호·고아라, 2013; Chang, 2012).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외로움과 공유행동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며, 사회자본에 따라 성인 기혼 남녀의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의 경로에도 차별적인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학·행정학·사회학 등 범학문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을 정신건강 영역에 접목해 거시적 영향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드물다. 특히,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의 불만족감과 외로움,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거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탐색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사회자본이 부부의 결혼생활과 SNS중독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반대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단정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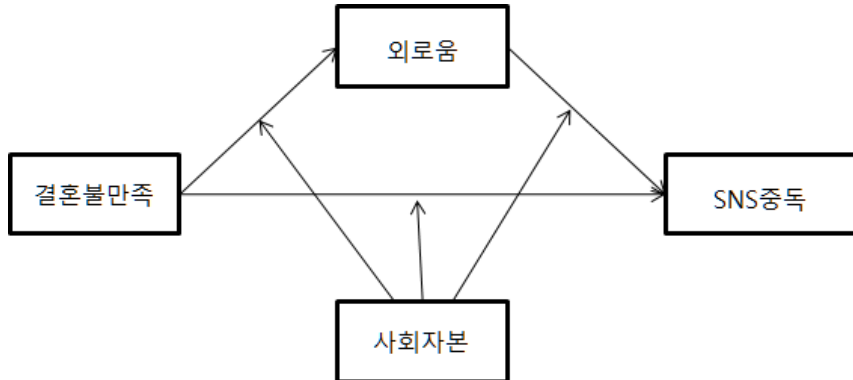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 및 가족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정서적 외로움을 SNS라는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의지해 극복해 보려는 행동이 SNS중독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경로가 개개인의 사회자본의 크기는 물론 면대면 및 SNS 사회자본의 비중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았다. 특히, 최근 몇몇 실증분석 연구들을 통해 사회자본이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절요인으로 분석되어진 바, 사회관계적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이 기혼 성인남녀의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의 관계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변수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호 및 위험요인으로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기혼 성인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매개하여 SNS중독에 미치는 경로를 사회자본(크기 및 형태 차이)이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

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가설 1) 기혼 성인의 외로움은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 기혼 성인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사회자본의 크기와 형태 차이(면대면 및 SNS사회자본 우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지난 3개월 간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20~49세 기혼(동거 및 별거 포함) 남·녀 714명이다. 연구대상을 성인 중 20~4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이들 연령층이 가족발달단계는 물론 인터넷 사용 능력이나 사용 빈도, 스마트폰 보유 현황 등에서 50대 이상 장년 및 노년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슷한 세대적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자료는 전국 규모의 온라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2016년 3월 2일~8일까지 자기기록식 질문지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전국 규모의 온라인 리서치 기관들은 통계청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자료와 유사한 할당조사 패널을 갖추고 있어 인구통계학적 비례에 따른 할당표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금희조, 2011). 본 조사에 앞서 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대상자 선정에 대해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JBNU 2016-01-001)의 승인절차를 거쳤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인: SNS중독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SNS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개발한 'SNS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오윤경(2012)이 개발한 11문항 척도에 9문항을 더한 것으로 개발

당시 요인분석 결과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통과 몰입', '과도한 시간투자' 등 3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해냈다. 각 문항들은 1~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SNS에 대한 중독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6이었다.

(2) 독립변인: 결혼불만족

연구대상자들의 결혼불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성(2001)이 개발하고 이병일(2007)이 사용한 바 있는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결혼 전반에 대한 불만족도와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도를 측정하는 2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문항(2, 4, 6, 10번)은 각각 역코딩하여 합산하였으며,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85로 나타났다.

(3) 매개변인: 외로움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김교헌과 김지환(1989)의 '한국판 UCLA 고독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Russell 등(1980)이 제작한 '개정판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번안한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느낌을 보고하도록 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의 불만족을 나타내는 부정문 10문항과 만족을 나타내는 긍정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긍정문은 모두 역점수 처리해 합산하였으며, 점수범위는 20~80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3이었다.

(4) 조절변인: 사회자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Williams(2006)가 개발한 인터넷 사회자본척도(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 ISCS)를 김구(2010)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질문지를 다시 축약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자본을 가족, 민족, 종교 등 동종집단 사이의 강력한 결합 및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유대자본(bonding capital)'과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보다 느슨하고 상대적으로 덜 배타적인 '교류자본(bridging capital)'으로 구분해 이들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공유된 규범이나 신뢰, 상호작용 등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원척도는 모두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대자본과 교류자본에서 각각 5문항씩을 선택해(면대면 합 10문항, 온라인 합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축약, 개인의 일반적인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SNS에서 나와 교류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등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면대면과 SNS상에서의 유대 및 교류 사회자본의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시 필요에 따라 각각의 문항들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9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해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둘째, 각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을 위해 신뢰도 분석과 함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인 기혼자의 결혼불만족도가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AMO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각 경로가 사회자본의 크기와 형태 차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모형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즉 조절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분리되어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 구조방정식모델로 구현이 가능하다(우종필, 2015; Wu & Zumbo 2007, Wegener & Fabrigar 2000).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자본을 연구문제에 따라 문항들을 합산(전체 혹은 면대면 및 온라인 사회자본)한 후 이를 다시 대·소 집단으로 구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 앞서 확인적요인분석을 선행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표본끼리의 교차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측정동일성은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형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지 아닌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집단분석에서 다수 집단의 응답자들이 각각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한편,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분석의 경우 집단별로 경로 간 회귀계수에 차이가 있는 지 측정오차를 고려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u & Zumbo 2007). 각 경로별 조절효과 검증은 다집단분석에 의한 대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지난 3개월간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20~49세 기혼 남·녀 714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47명(48.6%), '여성'이 367명(51.4%)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120명(16.8%), '30대' 258명(36.1%), '40대' 336명(47.1%)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항목	구분	빈도	%	다중 응답 %	항목	구분	빈도	%	다중 응답 %
	계	2451	100	343.8		계	714	100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카카오토티	276	37.4		1일 사용 시간	30분미만	230	32.2	
	페이스북	173	24.2			30분-1시간미만	262	36.7	
	밴드	105	14.7			1시간-2시간미만	131	18.3	
	트위터	10	1.4			2시간 이상	91	12.7	
	미니홈피	5	.7		계	714	100		
	인스타그램	36	5.0		업 데 이 트 수	0회	80	11.2	
	블로그	39	5.5			1~4회	513	71.8	
	카페 등 클럽	74	10.4			5~9회	80	11.2	
	기타	5	.7			10회 이상	41	5.8	
계	714	100		계	714	100			
주사용도구	스마트폰	635	88.9		사 용 이 유	누군가와 연결돼 있는 느낌 때문에	115	16.1	
	태블릿PC	9	1.3			폭넓은 대인관계 를 위해	138	19.3	
	PC	70	9.8			정보, 소식을 빠르 게 접할 수 있어서	397	55.6	
	계	714	100			유행에 따라가기 위해서	23	3.2	
중단	있다	237	33.2		오락 및 취미	34	4.8		
	없다	477	66.8		기타	7	1.0		
	합계	714	100		합계	714	100		
SNS 친구 수	10명내외	163	22.8		주 활 동 유 형	정보제시	198	10.1	27.7
	20명내외	197	27.6			생각 및 의견 제시	213	10.9	29.8
	30명내외	111	15.5			일상 글 게시	313	16.0	43.8
	40명내외	42	5.9			타인과 관계 맺기	236	12.1	33.1
	50명이상	188	26.3			게시글 읽기	523	26.7	73.2
	기타	13	1.8			게시글 반응, 공유	474	24.2	66.4
	합계	714	100			계	1957	100	274.1

3)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모든 관측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의 기술통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SNS 중독 총점 평균은 41.10(sd=13.82)으로 동일 척도를 사용한 조성현과 서경현(2013)의 연구에서의 39.31(sd=11.4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결혼불만족 중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결혼불만족 1요인)'은 최소 1점부터 최고 4점 범위에 평균 1.96(표준편차 .59)이었으며,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결혼불만족 2요인)'은 1~4점 범위에 평균 1.86(표준편차 .62)으로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족보다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외로움 중 부정정서(1요인)는 1~3.60점 범위에 평균 1.85점(표준편차 .53), 긍정정서를 나타

내는 문항들을 역점수 처리한 '2요인'은 1~3.60 범위에 평균 2.13점(표준편차 .41)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사회자본의 경우 면 대 면은 최소 1점부터 최고 5점 범위에 평균 3.32점(표준편차 .69), SNS사회자본은 1~4.80 범위에 평균 2.65점(표준편차 .72)으로 각각 나타나, 대체적으로 SNS사회자본보다는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측변인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단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et al., 1996).

〈표 3〉 기술통계 결과

변 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SNS 중독	집착 및 금단	1.94	.70	1.00	4.75	.475	-.418
	과잉소통과 몰입	2.20	.75	1.00	4.29	.146	-.682
	과도한 시간투자	2.04	.74	1.00	4.40	.276	-.676
결혼 불만족	결혼 불만족	1.96	.59	1.00	4.00	.261	-.227
	배우자 불만족	1.86	.62	1.00	4.00	.422	-.275
외로움	부정정서	1.85	.53	1.00	3.60	.184	-.507
	긍정정서	2.13	.41	1.00	3.60	.046	.548
사회 자본	면대면	3.32	.69	1.00	5.00	-.702	1.270
	SNS	2.65	.72	1.00	4.80	-.335	-.035

4)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기혼 성인 남녀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성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한 결혼불만족, 외로움, SNS중독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하나 이상의 계수가 매우 큰 오차를 보이거나, 음오차분산(negative error variance)과 같은 부(-)적 해가 있거나, 표준화계수가 -1~1을 벗어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추정치가 있거나, 추정계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pm .90$ 이상)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가정에 위배되는 추정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이 33.101(df=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자료와 모델의 적합도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사례수에 민감한 χ^2 통계량은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대표본의 경우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 결과, CFI=.994, TLI=.989, RMSEA=.053, SRMR=0.029로 이들 지수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표 4〉 참조). 또한,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808~.946으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 각 구성개념별 AVE와 CR값도 모두 .7 이상으로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표 4〉 참조).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표 5〉)를 토대로 모든 변수 쌍에서의 상관 자승과 AVE 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쌍에서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높은 값을 보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수에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한 결과 모든 쌍에서 1을 포함하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판별타당성 확보의 증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구성개념 간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델과 구성개념 간 공분산 관계를 고정시킨 제약모델 간의 χ^2 차이를 각각 비교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 쌍에서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 χ^2 차이가 3.84($\alpha=.05$) 이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표 4〉 측정 모형 분석

잠재 변수	측정 변수	Estimate		표준 오차	CR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수				
결혼	1요인	.946	.994	.034	29.219***	.971	.861
	2요인	.909	1.000				
외로움	1요인	.932	1.000	.030	22.101***	.969	.761
	2요인	.808	.673				
SNS 중독	1요인	.931	.953	.023	40.944***	.969	.848
	2요인	.909	1.000				
	3요인	.923	.923				

$\chi^2=33.101$, $df=11$, $p<.001$, $CFI=.994$, $TLI=.989$, $RMSEA=.053$, $SRMR=0.029$.
*** $p<.001$

〈표 5〉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결혼불만족	외로움	SNS중독
결혼불만족	1		
외로움	.662***	1	
SNS중독	.186***	.360***	1

*** $p<.001$, ** $p<.01$, * $p<.05$.

(2) 구조모형

본 연구모형의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모수 추정치인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자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통해 경로를 받는 내생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43.9%이고, 결혼불만족과 외로움이 SNS중독을 설명하는 정도는 13.4%였다. 각각의 경로계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불만족에서 외로움에 이르는 경로는 $CR=18.716$ ***, 외로움에서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는 7.242***로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는 -1.69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표 6〉 구조모형 분석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SMC
결혼불만족→외로움	.662	.580	.031	18.716***	.439
외로움→SNS중독	.422	.584	.081	7.242***	
결혼불만족→SNS중독	-.093	-.113	.067	-1.698	.134

$\chi^2=33.101$, $df=11$, $p<.001$, $CFI=.994$, $TLI=.989$, $RMSEA=.053$, $SRMR=0.029$.

*** $p<.001$

위 구조모형에서 매개효과가 부분적인 것인지,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 서로 내재된 모형의 경우 χ^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을 비교하게 되는데, 〈표 7〉과 같이 χ^2 차이 값이 2.962, 자유도 차이 값이 1로 나타났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 그 외에 CFI, TLI, RMSEA 등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두 모형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즉, 매개변수인 '외로움'이 개입됨으로써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외로움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Delta\chi^2$ (Δ df)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33.101	11		.994	.989	.053	.029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	36.063	12	2.962(1)	.994	.989	.053	.034

완전매개모형의 총효과는 간접효과 크기인 .276으로,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가 (.229~.344)로 하한과 상한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수준 .01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표 8〉 참조).

2) Holmbeck(1997)의 접근법에 의하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할 때, 두 모델 간 자유도 1에서 χ^2 차이 값이 $\alpha=.005$ 수준에서 3.84 이하이고, 매개변수가 고려되는 조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접적인 경로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나면 완전매개(full mediation)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8〉 최종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신뢰구간
결혼불만족→SNS중독	.000	.234	.234	.229~.344**

** p<.01

(3) 조절된 매개모형

① 사회자본 크기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인 성인 기혼 남·녀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매개해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다집단 분석방법을 적용했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사회자본은 메트릭 변수로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조절변인은 비메트릭 변수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단을 사회자본 '대'와 '소'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집단 구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 변수 내 전체 문항을 합산한 후 총점에서 $\pm 1/4$ 표준편차 지점을 기준으로 상위 40%와 하위 40%를 각각 사회자본 대 집단(n=289명), 사회자본 소집단(n=295명)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집단 분석 시 메트릭 변수가 조절변수일 때는 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집단을 나누는 경우 간혹 분리점 중심에 위치한 사례들끼리 근소한 차이로 인해 집단 간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 중심에 분포한 사례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평균으로부터 $\pm 1/4$ 표준편차 이내의 사례들을 제외한 후 상, 하위 40%로 각각 집단을 구성해 분석에 투입하였다. 사회자본 총점을 기준으로 평균점 이상 및 이하, 또는 $\pm 1/2$ 표준편차 이내 사례를 제외한 상·하위 30%로 집단을 구성했을 시에도 구체적인 수치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은 물론 각 경로 차이 유의미성 등에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집단 구성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연구모형인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전에 사회자본 대와 소 두 집단에서 측정모형이 동일한 지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델(모델 1)은 $\chi^2=34.958$, CFI=.996, TLI=.992, RMSEA=.032, SRMR=.035로 모형과 자료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이어 두 집단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모델 2)은 비제약모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7.211$, $df = 4 < 9.49$).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제약한 모델(모델 3)과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모델 4)은 비제약모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Delta\chi^2 = 29.403$, $df = 10 > 18.31$, $\Delta\chi^2 = 56.019$, $df = 17 > 27.59$)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과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집단 간 등가제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9〉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적합도 비교(다집단 확인적요인분석)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Delta\chi^2$ (df)	sig.
모델1	34.958	22	.996	.992	.032	.035		
모델2	42.169	26	.995	.992	.033	.037	7.211(4)	비유의
모델3	64.361	32	.990	.987	.042	.040	29.403(10)	유의함
모델4	90.977	39	.984	.982	.048	.042	56.019(17)	유의함

1. 모델 1: 비제약모델
2. 모델 2: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 λ)를 고정한 모델
3. 모델 3: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4. 모델 4: 측정모델에서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조절변수가 포함된 매개된 조절모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먼저, 사회자본 대 집단과 사회자본 소집단에 대해 구조방정식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잠재변수 간 경로를 고정한 모델이 제약모델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23.656$, $df = 7 < 14.07$).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자본 대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beta = .546$, $C.R = 11.792$, $p < .001$), 외로움이 SNS중독($\beta = 1.073$, $C.R = 7.294$, $p < .001$)에, 결혼불만족이 SNS중독($\beta = -.330$, $C.R = -3.119$, $p < .01$)에 이르는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자본 소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에($\beta = .595$, $C.R = 11.913$, $p < .001$), 외로움이 SNS중독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474$, $C.R = 4.221$, $p < .001$),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못미쳐($\beta = .000$, $C.R = .005$, $p > .05$) 두 집단 간 경로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즉, 사회자본 소집단에서는 외로움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변인 사이에서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용했으나, 사회자본 대 집단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으며, 각각의 경로별 비표준화 계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표 11〉 참조).

〈표 10〉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적합도 비교(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Delta\chi^2$ (df)	sig.
모델1	34.958	22	.996	.992	.032	.035		
모델2	42.169	26	.995	.992	.033	.037	7.211(4)	비유의
모델3	58.614	29	.991	.987	.042	.046	23.656(7)	유의함
모델4	61.958	30	.990	.986	.043	.046	27.000(8)	유의함
모델 5	64.361	32	.990	.987	.042	.040	29.403(10)	유의함
모델6	90.977	39	.984	.982	.048	.042	56.019(17)	유의함

1. 모델 1: 비제약모델
2. 모델 2: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 λ)를 고정한 모델
3. 모델 3: 잠재변수 간 경로를 고정한 모델
4. 모델 4: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5. 모델 5: 구조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6. 모델 6: 측정모델에서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표 11> 집단별 모수 추정치(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집단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SMC
사회 자본 대	결혼불만족→외로움	.668	.546	.046	11.792***	.447
	외로움→SNS중독	.722	1.073	.147	7.294***	.333
	결혼불만족→SNS중독	-.272	-.330	.106	-3.119**	
사회 자본 소	결혼불만족→외로움	.677	.595	.050	11.913***	.667
	외로움→SNS중독	.381	.474	.112	4.221***	.381
	결혼불만족→SNS중독	.000	.000	.093	.005	

*** p<.001

대응별 모수비교를 통해 이러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C.R=3.238)와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C.R=-2.348)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결혼불만족에서 외로움(C.R=-.718)에 이르는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2> 참조). 이는 외로움에서 SNS 중독에 이르는 영향력이 사회자본 소 집단 보다는 대 집단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 대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 부분매개효과가 성립하지만, 이와 달리 자신의 사회자본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하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표 12> 대응별 모수비교(C.R값)

	결혼불만족→ 외로움	외로움→ SNS중독	결혼불만족→ SNS중독
결혼불만족→외로움	-.718		
외로움→SNS중독		3.238	
결혼불만족→SNS중독			-2.348

집단 간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크기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사회자본 대집단의 경우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총효과는 .211, 직접효과는 -.272, 간접효과는 .483으로 나타났으며,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가 (.154~.419)로 하한과 상한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09). 또한, 사회자본 소집단에서도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총효과 .258, 직접효과 .000, 간접효과는 .258로,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가 (.138~.383)로 하한과 상한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12).

〈표 13〉 집단별 효과분해표

집단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 신뢰구간
사회자본 대	결혼불만족→SNS중독	-.272	.483	.211	.154~.419**
사회자본 소	결혼불만족→SNS중독	.000	.258	.258	.138~.383*

** p<.01, * p<.05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사회자본 크기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거쳐 SNS 중독에 이르는 매개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환경적 영향요인인 사회자본의 크기가 기혼 성인의 SNS 중독 문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조절된 매개 모형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사회자본이 크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이르는 직접효과 경로와, 외로움에서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값이 사회자본 소 집단에 비해 월등히 크며, 이 같은 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이 클수록 외로움과 SNS 중독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데, 이는 사회자본 변수 구성 시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 측면을 함께 포함시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의 긍정적 보호효과와 SNS 사회자본의 위험인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자본 대 집단에서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의 관계가 부(-)의 관계로 나타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큰 집단에서 낮은 결혼불만족이 오히려 SNS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상식적인 이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개개인이 주로 의지하는 사회자본의 장면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추측해 한다. 즉, 조절변수인 사회자본의 복합적 특질을 보다 면밀히 분리해 내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좀 더 세밀한 모형 검증을 위해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면대면, SNS 사회자본으로 각각 분리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② 면대면, SNS 사회자본 크기 차이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보다 세밀한 연구설계를 위해 조절변수인 사회자본을 '면대면' 및 'SNS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자본으로 각각 나눠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에 대해 각각 대, 소 집단을 구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혼자들이 인식하는 개인의 사회자본이 면대면 상황과 SNS 온라인 상에서 불균형에 따른 격차를 보일 때, 즉, 사회자본의 형태에 따른 상대적 비중 차이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본 연구모형이 어떠한 양태를 나타내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즉,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사회자본이 면대면에서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SNS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더 의존하는 지에 따

라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경유해 SNS 중독에 이르는 매개모형의 경로별 효과크기를 나타내는지 분석해 보았다. 집단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 전체 문항을 각각 합산한 후 그 차이의 상위 40%와 하위 40%(평균으로부터 $\pm 1/4$ 표준편차 이내 사례 제외)를 각각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N=279명),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N=257명)으로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자본 차이 평균 기준 및 상·하위 30%($\pm 1/2$ 표준편차 이내 사례 제외) 만을 포함한 집단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만 다소 차이가 날 뿐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별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전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표 14>와 같이 집단 간 등가제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4>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적합도 비교(다집단 확인적요인분석)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Delta\chi^2$ (df)	sig.
모델1	40.340	22	.993	.987	.040	.021		
모델2	45.225	26	.993	.988	.037	.021	4.885(4)	비유의
모델3	65.316	32	.987	.983	.044	.074	24.976(10)	유의함
모델4	77.075	39	.986	.984	.043	.073	36.735(17)	유의함

1. 모델 1: 비제약모델
2. 모델 2: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 λ)를 고정된 모델
3. 모델 3: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된 모델
4. 모델 4: 측정모델에서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된 모델

조절변수가 포함된 매개된 조절모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 참조). 먼저,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과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 대해 구조방정식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잠재변수 간 경로를 고정된 모델의 경우 제약모델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17.446$, $df = 7 < 14.07$).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이 외로움($\beta = .552$, $C.R = 10.334$, $p < .001$)에, 외로움이 SNS중독($\beta = .228$, $C.R = 2.080$, $p < .05$)에 각각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불만족과 SNS중독($\beta = -.097$, $C.R = -1.083$, $p > .05$)의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서도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에($\beta = .569$, $C.R = 11.213$, $p < .001$), 외로움이 SNS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631$, $C.R = 4.595$, $p < .001$),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못미치는($\beta = -.097$, $C.R = -1.013$, $p > .05$)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경로별 비표준화 계수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과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서 모두 외로움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변인 사이에서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용했으나, 두 집단 간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차이가 SNS 사회자본이 더 우세하다고 한 집

단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요구된다(〈표 16〉 참조).

〈표 15〉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적합도 비교(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Delta\chi^2$ (df)	sig.
모델1	40.340	22	.993	.987	.040	.021		
모델2	45.225	26	.993	.988	.037	.021	4.885(4)	비유의
모델3	57.786	29	.989	.984	.043	.066	17.446(7)	유의함
모델4	60.248	30	.989	.984	.043	.069	19.808(8)	유의함
모델5	65.316	32	.987	.983	.044	.074	24.976(10)	유의함
모델6	77.075	39	.986	.984	.043	.073	36.735(17)	유의함

〈표 16〉 집단별 모수 추정치(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집단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SMC
면대면 사회 자본 우세	결혼불만족→외로움	.637	.552	.053	10.334***	.405
	외로움→SNS중독	.192	.228	.110	2.080*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100	.092	-1.083	.023
SNS 사회 자본 우세	결혼불만족→외로움	.682	.569	.051	11.213***	.465
	외로움→SNS중독	.480	.631	.137	4.595***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106	.105	-1.013	.177

*** p<.001

대응별 모수비교를 통해 이러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C.R=2.291). 그러나, 결혼불만족에서 외로움(C.R=.219),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C.R=-.045)에 이르는 두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7〉 참조). 이러한 결과는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 비해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서 외로움이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비중 있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SNS 사회자본에 더 의존적인 집단에서 결혼불만족으로 인해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 SNS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간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크기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7> 대응별 모수비교(C.R값)

	결혼불만족→ 외로움	외로움→ SNS중독	결혼불만족→ SNS중독
결혼불만족→외로움	.219		
외로움→SNS중독		2.291	
결혼불만족→SNS중독			-.045

<표 18> 집단별 효과분해표

집단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신뢰구간
면대면 우세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122	.025	.010~.222
SNS 우세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328	.231	.210~.542*

* p<.05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혼 성인의 사회자본 특성에 따라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거쳐 SNS 중독에 이르는 매개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인의 사회자본이 면대면 또는 SNS 온라인 상에 더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혼 성인의 사회자본 특성이 SNS 중독 문제에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사회자본이 면대면보다는 SNS 온라인 장면에 치우쳐 있다고 답변한 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으로 유발된 외로움이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우세하게 인식하는 경우 이러한 경로에서 사회환경 요인인 사회자본이 보호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대~40대 기혼 남·녀 714명을 대상으로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사회자본의 크기와 형태 차이가 조절할 수 있는지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혼불만족의 결과로 파생된 정서인 외로움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경유해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적 기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외로움이 SNS중독에 미치는 결혼생활의 질의 영향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로움의 완전매개효과는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결과를 통해 SNS중독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 내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불안이 클수록 외로움과 충동적 성향이 높고, 이를 매개해 SNS와 게임 등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한승수·오경수(2006), 여지영 외(201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외로움이 대인민감을 통해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고은영 외, 2014)와 일부 부합한다. 외로움의 완전매개효과는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사이에 영향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로움에 의한 간접효과가 가정환경 요인인 결혼불만족의 직접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사이에 미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186, p<.001$)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완전매개효과는 외로움에 의해 발생한 간접효과가 중요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외로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다른 가능한 변인들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검증해 봐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완전매개효과를 고려했을 때 외로움이 어떻게 결혼생활 중인 성인 남녀의 SNS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와 갈등을 빚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로 외로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통해 외로움을 감소하려고 함으로써 SNS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모형이 개인의 사회자본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불만족으로 초래된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경로가 유효하며, 사회자본의 빈부 차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매개 과정 자체가 약화 또는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체질이나 유전적 요소, 심리정서적 요인들 보다도 중독과정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중독에 이르는 단계별 활동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Orford(2001)와 Shaffer 등(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경로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와, 외로움이 SNS중독에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자본 소 집단 보다 대 집단에서 유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사회자본 소 집단에서는 아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는 등 차이를 보였다. 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이 큰 집단에서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경유해 SNS 중독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고 단정지어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회자본 변수 구성 시 면대면 및 SNS 사회자본을 단순 합산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이 SNS 중독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질적인 작용을 나타낼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단선적인 영향관계에서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친구의 숫자, 신뢰하는 사람의 수, 공동체 생활의 참여 여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독 등 개인의 건강문제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취약한 인간관계와 불운한 결혼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송경재, 2010; Putnam, 2001; Uslaner, 2002; Wilkinson, 2012).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온라인 상에 구축된 사회자본 자체가 SNS, 혹은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송혜진·오세연, 2013; 이상호·고아라, 2013; 박성우, 2014; 홍서호, 2015; Chang, 2012).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외로움과 SNS 중독의 관계에서도 사회자본은 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가 주어지지 않는 동안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지지가 증가될 때 외로움이 감소한다고 선행연구 결과(Eldeleklioglu, 2008)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 부재, 고독 등 실제적인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Kraut et al., 2002)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자본을 면대면과 SNS 온라인 상으로 따로 분리해 각기 빈부 집단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별도로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가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연구자료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면대면, 혹은 SNS 온라인 상의 사회자본의 크기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2차적으로 형태별 비중의 차이가 변화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지 검증해보았다. 검증 결과 자신의 사회자본이 SNS에서 보다 면대면에서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매개로 SNS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면대면 보다는 SNS상에서의 사회자본이 더 우세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에는 결혼불만족으로 인한 외로움이 SNS중독의 원인이 되는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면대면 보다는 SNS사회자본을 더 비중 있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불만족과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력에 더 취약하게 되어 SNS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집단에서 경로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이 SNS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 즉,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풍부하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불만족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사회자본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SNS중독으로 귀결되는 연결고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SNS 사회자본의 비중이 더 크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SNS 활동에 더욱 몰입함으로써 결국 중독에 이르는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면대면 또는 SNS 사회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이 두 형태의 비중 차이에 따른 불균형 자체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까지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의 매개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매개모형의 각 경로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해보면, 본 연구결과는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하는 원인 중 하나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꼽은 김광웅 외(2004)의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현실 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상호작용 욕구로 인터넷에 의존할 때, 즉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한 지향이 높은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정민, 2006)는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다 좀 더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몰입할 때 SNS 중독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상호와 고아라(201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비롯한 성인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정책 대부분이 청소년 만을 표적집단으로 설계돼, 성인의 경우 사회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SNS 과다사용에 따른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부작용들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성인들의 소셜미디어, SNS중독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성인의 SNS 사용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하나 변변히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SNS 사용 실태 및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개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기혼 성인의 결혼 및 부부관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실천 현장에서 정신건강 문제 개입 시 SNS 중독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즉, SNS 이용 확대에 의한 다양한 순기능과 함께 과다사용이나 중독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가정환경 요인인 결혼불만족과 SNS중독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기혼 성인의 SNS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사회 환경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한다. 외로움의 완전매개 경로 확인을 통해 결혼불만족과 같은 가정환경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더라도 외로움이 증가되지 않거나, 어떤 보호요인의 개입을 통해 외로움이 감소된다면 SNS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SNS 중독에 대한 개입방법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부부갈등 및 결혼관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과 함께 사회 환경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외로움 등 정서문제를 완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개입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외로움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나 사회자본이라는 단편적인 외적 지원의 효과 보다 외로움 해소에 초점을 둔 사회자본 강화라는 개인의 사회·환경적 보호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부부 문제 개입 및 정신건강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심리·정서적, 가족 관계 측면의 어려움을 통해 SNS중독이라는 정신건강 문제가 표출될 잠재성이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개입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혼자의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의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크기 자체 보다는 온라인·오프라인 사회자본 비중의 불균형이 실질적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은 오프라인의 공적·사적 공간과 결합될 때 융합적 사회자본의 생성과 축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송경재, 2005). 이는 개인에게 온·오프라인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의 균형이 개인은 물론 가족 및 사회적으로 유익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화하며 개인의 생활의 중요한 통신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SNS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이 개인의 정신건강 및 가족복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아직까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도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인 및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와 온·오프라인 사회자본과의 연결고리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SNS 중독문제와 개인 및 가족, 사회환경적 요인까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편향 우려이다. 온라인 리서치 기관들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자료와 유사한 할당 조사 패널을 갖추고 있어 비확률 표집으로 인한 편차 발생 우려가 낮은 것이 장점이다. 반면, 패널 가입자 만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뤄지는 폐쇄성으로 인해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성별 및 연령대,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표본들 만이 표집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 20~40대 만을 선정한 데 따른 일반화의 한계이다. 최근 만혼 풍속 만연과 50대의 활발한 SNS 사용 추세를 감안했을 때 보다 넓은 연령층에서의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SNS 중독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본 연구조사에서 대상자의 연령대를 20~40대 만으로 한정하고, 결혼기간에 따른 연구문제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함으로써 전체 기혼자들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모형이 SNS중독 과정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성인들의 SNS 몰입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SNS중독이라는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 축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은영 · 최윤영 · 최민영 · 박성화 · 서영석, 2014, “외로움, 대인민감 및 페이스북 중독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13-738.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5): 7-48.
- 김교현 · 김지환, 1989, “한국판UCLA 고독척도”,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6: 13-30.
- 김광웅 · 유미숙 · 이지향, 2004,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온라인 대인관계 성향과대면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아동학회지』, 25(2): 109-120.
- 김구, 2010,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성 탐색: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5-44.
- 김동윤 · 오소현 역, 2008, 『사회자본』,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명희, 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수영 역, 2008, 『평등해야 건강하다』, Wilkinson, R.,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서울: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 박성우, 2014, “SNS 이용의 정서적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기, 2014,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95-125.
- 박정희·박희현, 2014, “아동의 외로움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2): 179-192.
- 서거, 2013, “페이스북(Facebook) 이용 중독이 대학생의 사회성 및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보경, 2014, “성인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305-317.
- 송경재, 2005, “인터넷 사회자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보화정책』, 12(4): 3-22.
- 송혜진·오세연, 2013, “대학생의 MSNS(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중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2): 56-82.
- 여지영·강석영·김동현, 2014, “초기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충동성, 외로움의 매개효과: SNS 집단과 게임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47-69.
- 오영은·이정화, 2015,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농촌노인의 고독감 관련 변인연구”, 『한국노년학』, 35(4): 1135-1157.
-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모델 및 조절된 매개모델에 대한 고찰: 만족, 신뢰, 의존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3(4): 45-56.
- 유계숙·김은희, 2015, “기혼 성인남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부부관계 관련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20(1): 5-26.
- 유현숙, 2013,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 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박완경, 201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SNS 중독성향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208-236.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상호, 201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중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형 SNS 중독지수(KSAI) 제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1(1): 255-265.
- 이상호·고아라, 2013, “소셜미디어 중독의 영향 요인 연구: 페이스북 이용자의 인식과 몰입을 중심으로”, 『언론학보』, 57(6): 176-210.
- 이영훈·유수현, 2012, “중학생의 욕구불만족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57-85.
- 이정은·양수, 2005, “주부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부부의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 『정신간호학회지』, 14(4): 428-437.
- 이지은·성동규, 2013, “페이스북 이용과 대인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한·미 문화간 비교 연구: 자아개념과 자기노출, 대인불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257-281.
- 이창호·신만민·하은빈,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현덕·홍혜영, 2011,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관계: 외로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 271-294.
- 장덕희·장재원·염동문, 2015,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문화적

- 은과 사회자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0(4): 631-649.
- 전호선·장승욱, 2014, “스트레스와 우울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103-129.
- 정병완·홍혜영, 2015, “내현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감과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83-201.
- 조민자, 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절 변인 탐색”, 『청소년시설환경』, 8(3): 29-42.
- 조성현·서경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주정민, 2006, “인터넷 의존유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0(3): 476-524.
- 최승미, 2015, “결혼만족도, 스마트폰 중독 및 외도태도가 인터넷 외도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1): 55-75.
- 한승수·오경수, 2006, “대인관계 유형과 사용경향에 따른 이동전화 중독 성향 연구: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4): 371-405.
- 한혜영·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부부 조망수용능력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홍서호, 2015, “소셜미디어 이용과 온라인 사회자본이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을 사용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3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국민일보, 2015, “김포 20대 주부 아파트 살인사건 범인은 SNS 채팅남”, 2015년 5월 27일.
- 세계일보, 2016,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SNS”, 2016년 4월 27일.
- Caplan, S. E., 2007, “Relations among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Cyber Psychology & Behavior*, 10(2): 234-242.
- Chang, C., 2012, “Examining users’ intention to continue using social network games: A flow experience perspective”, *Telematics and Informatics*, 30(4): 311-321.
- Clayton, R., Osborne, R., and Miller, B., 2013, “Loneliness, anxiousness, and substance use as predictors of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687-693.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 Eldeleklioglu, J., 2008, “Gender, romantic relationships, internet us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ocial skills as the predictors of loneliness in Turkish,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 127-140.
- Grant, K. E., Compas, B. E., Stuhlmacher, A. F., Thurm, A. E., McMahon, S. D., and Halpert, J. A., 2003,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oving from markers to mechanisms of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29: 447-466.
- Griffiths, M., 1997,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study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wkey, L. C., Hughes, M. E., Waite, L. J., Masi, C. M., Thisted, R. A., and Cacioppo, J. T., 2008, “From social structural factors to perceptions of relationship quality and loneliness: The Chicago health, aging, and social relations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6): S375-S384.

- Kim, J., LaRose, R., and Peng, W., 2009, "Loneliness as the cause and the effect of problematic Internet us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4): 451-455.
-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and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49-74.
- Kuss, D. J. and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 Lemmens, J. S., Valkenburg, P. M., and Peter, J.,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ame addiction scale for adolescents", *Media Psychology*, 12(1): 77-95.
- Norton, A. M., and Baptist, J., 2014, "Couple boundaries for social networking in middle adulthood: Associations of trust and satisfaction. Cyber 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8(4): article 2, doi: 10.5817/CP2014-4-2.
- Orford, J., 2001, "Addiction as excessive appetite", *Addiction*, 96(1): 15-31.
- Oldmeadow, J. A., Quinn, S., and Kowert, R., 2013, "Attachment style, social skills, and facebook use amongst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1142-1149.
- Özad, B. E., and ygarer, G., 2014, "Attachment need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2(Supplement 1 to Issue 1): 43S-52S.
- Pelling, E. L. and White, K. M., 200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lied to young people's use of social networking web sites",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 755-759.
- Peplau, L. A., and Perlman, D., 1982,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Pinquart, M., 2003, "Loneliness in married, widowed, divorced, and nevermarriedolder adul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1-53.
- Putnam, R. 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haffer, H. J., La Plante, D. A., La Brie, R. A., Kidman, R. C., Donato, A. N., and Stanton, M. V., 2004,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expressions,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6): 367-374.
- Stevens, N., and Westerhof, G. J., 2006, "Marriage, social integration andloneliness in the second half of life: A comparison of Dutch and Germanmen and women", *Research on Aging*, 28: 713-729.
- Valenzuela, S., Halpern, D., and Katz, J. E., 2014, "Social network sites, marriage well-being and divorce: Survey and state-level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6: 94-101.
-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628.
- Wilson, K., Fornasier, S., and White, K. M., 2010, "Psychological predictors of young adult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2): 173-177.
- Zhou, M., 2005, 『Ethnicity as Social Capital: Community-based Institutions and Embedded Networks of Social Relations, Ethnicity, Social Mobility and Public Policy: Comparing the US and UK.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

Kim, Nam H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whethe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NS addiction resulting from marital dissatisfaction and loneliness is influenced by gender or size and composition of social capital. 714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to 40'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y online research center with quota sampling based on demographical proportion. To analyze this research model,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loneliness moderated between marital dissatisfaction and SNS addiction.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is insignificant, comparison of competition model was able to determine if mediating effect was fully or partially shown. As a result, the complete mediated model was ultimately chosen because its various goodness-of-fit index including χ^2 performed fairly well. Second, the mediating effect which moderates social capital size was presented in the mediated model between the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Specifically, It implies that group who recognizes their social capital big recognizes the route and effect size more than that who considers their social capital small.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depending on different type of social capital among the marital dissatisfaction and loneliness and between SNS addiction was substantiated. It implies that disequilibrium of SNS social capital in face-to-face sphere and in online acted as a danger fact with respect to the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sns addiction, social capital, moderated mediating effect.

[논문 접수일 : 17. 01. 11, 심사일 : 17. 01. 16, 게재 확정일 : 17. 02. 07]